

국민은행 불자회 5월 창립한다

2일 조계사에서 발기인법회 금융권 불자회 발전 기대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에 불자행원들의 신행모임이 결성된다. 한국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금융권 불자회로는 여섯번째다.

국민은행 불자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모임은 4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설법전에서 발기인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포교국장 선웅 스님, 이탁수 전국금융단체자연합회 운영위원장(우리은행불자회장), 하용이 한국은행 불이회장과 권준화 국민은행 불자회 발기인모임 대표(일산 탄현지점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발기인법회에서 모임을 주도한 권준화 대표와 정문용 남부심사센터 선임 심사역은 "4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민은행에 불자모임이 없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반드시 불자회 창립으로 귀결시키겠다"고 각오를 펴려 했다. 이탁수 금융자연 운영위원장은 "국민은행에 불자회를 창립해 금융인불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행활동을 펼쳐나가자"고 축하인사를 전했다.

지난 1월과 3월 불자회 창립관련 메일을 국민은행 전직원에게 발송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민은행 불자회 발기인모임은 조만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을 위한 활동에 들어가며, 이르면 5월중 공식적인 창립법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발기인모임은 90년대초, 2003년 각각 불자회를 창립하기 위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사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전례가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불자회가 없는 은행들에게도 적잖은 자극이 될 것으로 보여 금융인불자들의 자기진작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영 기자

동국대 경주병원·한방병원불교회 무료진료

약사보살 서원 의료봉사로 실천

4월 2일 진천읍서 47명 '분주한 하루' ... 매년 네차례 농촌·사찰 찾아

"할머니, 점심은 드시고 오셨어요?" "우리 할아버지께는 제일 좋은 안경 하나 드릴게요."

4월 2일, 경주시 건천읍의 작은 시골마을 서원 면사무소에는 즉석 종합병원이 마련됐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 불교회가 지역민을 위한 무료진료에 나선 것.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등 양방 7개과와 한방 진료까지 이날 투입된 의료진은 총 47명에 달했다.

마을회관 입구에는 며칠전부터 무료진료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렸다. 마을회관 안은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등 각 과별 진료테이블과 약국까지 마련돼 작은 종합병원이 됐다. 오전 9시, 진료 개시와 함께 진료소를 찾는 지역민들의 표정이 밝다.

불교회 회원들은 은종일 지팡이를 짚고 또는 보조대를 이용해 어렵게 찾아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부축하고, 진료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리가 아파도 돈이 아까워 병원 한 번 못 갔다며 하소연을 늘어놓는 할머니부터 아프지도 않은데 무조건 약을 달라며 화를 내시는 할아버지까지 사연도 다양하다. 시골마을 어르신들에게 무엇보다 인기 있는 치료제는 물보기인경. 신문을 펼쳐두고 안경의 효능을 시험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진지하다.

중풍으로 한쪽 팔이 마비가 된 할머니는 치료를 다 받고도 무조건 침을 많이 놔달라고 떼를 쓴다.

"할머니, 침은 많이 맞아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한 대를 정확히 맞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장규태 동국대 경주한방병원 불교회장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올바른 의료기술의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장 회장은 "시골 어르신들이라보니 잘못된 의료상식으로 치료를 안받고 방치하거나 막무

가내로 약을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며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설명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 불교회는 이렇게 1년에 네차례씩 무료진료 봉사활동을 나선다. 이 가운데 한차례는 조계종 교구본사 사찰을 찾아 스님과 신도들을 검진한다. 지난해에는 양산 통도사에 다녀왔고, 2003년에는 합천 해인사에서 진료를 했다.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 불교회원들은 의료봉사는 물론, 간병봉사, 호스피스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4월 2일 경주 서원면사무소에서 진행된 무료진료 모습.

하루 3교대로 바쁘게 돌아가는 병원의 직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동국대 경주병원과 경주한방병원의 의료진은 불교회의 다양한 신행활동을 통해 오히려 각박한 병원업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얻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는 매일 첫째주와 셋째주 수요일 정기법회와 1년에 두차례 갖는 성자순례 등 기본적인 신행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에 총무부, 구도부, 봉사부, 기획홍보부, 사회문화부, 호스피스, 메트리카루나 등의 부서별 신행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메트리카루나는 가족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환자의 간병

을 도와 환자 가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봉사프로그램이다.

불교회 회원들의 일과는 병원에 법당인 약사전에서 시작된다. 매일 오전 8시, 출근 시간에 맞춰 열리는 예불에 동참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약사전은 불교회원들에게 신행의 출발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외에도 회원들의 신행생활과 병원내의 환자와 가족의 위안 차원을 넘어 대사회적 활동을 통해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불교회는

작년에 복지관 어린이들에게 무료 포경수술을 지원했고, 작년 8월부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무의탁노인에게 무료 개인수술을 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지원한 수술은 총 60여건. 병원에 오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직접 차량지원도 나선다.

지영한 경주병원 불교회 사회문화부장은 혼자 살면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밟도 못 해 먹었던 91세의 할머니를 잊을 수가 없다. 수술 후 할머니가 병원 내 법당 약사전에서 부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며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고 감동과 보람을 느꼈다.

불교회 지도법사 무구 스님은 "눈이 안 보이는 어려운 불자들에게 눈을 밝혀주는 일만큼 큰 보시는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 불자들에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인사를 베푸는 일이 바로 수행이다"고 격려했다.

이동서 동국대 경주병원 불교회장(소아과)은 "불교계 의료진이 굳이 불교를 이야기 않더라도 대사회적 봉사활동을 나선 것만으로도 큰 포교임을 느꼈다"며 "중생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보살의 마음으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배지선 기자 jisun@buddhapia.com

정상현

춘천시청 도반회장

우리단체 이사람



독실한 불교집안에서 자랐으면서도 예전엔 그저 관광으로 절에 드나들던 정회장은 막연히 불교가 알고 싶다는 생각에 1993년 석왕사 불교대학에 입학, 불교에 입문했다.

석왕사에서 배우는 법명도 받았다. "불교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처음엔 지식수준에 지나지 않았습다. 그런데 2년쯤 지나서야 '불교는 곧 삶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수행을 시작하게 됐어요."

정회장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54배와 <천수경> 독송을 수

매일 아침 '천수경' 독송

회원관리·신행동력 '짱'

정회장은 도반회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로 정하고, 그동안 적잖은 회비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회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생각이다. 여기에 춘천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수공원에 보리수나무 등을 식재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1회원 1인 교화'를 통한 회원배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추진할 새 집행부로는 진옥균 부회장, 김경희 총무부장, 우준수 홍보부장, 김영원 신행부장, 변희자 포교부장, 최금선 봉사부장, 최현숙 의외부장 등을 선임했다.

가족과 함께 템플스테이 대구교사불자회 동화사서

대구지역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대구지부(지부장 신연섭)가 4월 16~17일 대구 동화사에서 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가족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열주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찬불가 배우기, 명상·요가, 발우공양, 예불 및 108배 등으로 진행된다.

대구교사불자회는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구지역 초등학교에 지회를 설립하기 위한 파라마타정소년원회 지도교사를 확보하는 한편, 일반 교직원들

의 불문교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은 60명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011-9591-4356

정불회장 취임법회

4월 13일 봉행

김병준(51) 청와대 정책실장의 제9대 청와대불자회장 취임법회가 4월 13일 오후 6시 30분으로 연기됐다. 장소는 조계사 대웅전. 청와대불자회는 4월 6일 '강원도 양양과 고성 등 산불피해 수습대책 마련 등 긴급업무'로 인해 취임법회를 연기한다"며 "법회가 어렵하게 봉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진기획의 품격있는 카드

비단정등 실용신안특허 33289호 의장등록 제50831호
▶ 값 2,700원(100개 이상 주문시)

4·8 봉축카드

1. 4·8 봉축카드
2. 4·8 봉축카드
3. 4·8 봉축카드
4. 4·8 봉축카드
5. 4·8 봉축카드
6. 4·8 봉축카드
7. 4·8 봉축카드
8. 4·8 봉축카드

생일카드

1. 생일카드
2. 생일카드
3. 생일카드
4. 생일카드

카드내지

1. 카드내지
2. 카드내지
3. 카드내지
4. 카드내지

- 카드 100매 이상 단가 500원
- 카드 500매 이상 단가 400원
- 카드 1,000매 이상 단가 300원
- 봉투, 내지 인쇄포함

프린트용 컬러인쇄지

1. 프린트용 컬러인쇄지
2. 프린트용 컬러인쇄지
3. 프린트용 컬러인쇄지
4. 프린트용 컬러인쇄지

▶ 값 10,000원(500매)

Since 1975

동진기획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 (051) 515-8888(대)
FAX : (051) 508-0101
H·P : 011-554-2988

- 불교서적 • 불교카드 • 주문카드
- 불교용품 • 연등 • 사찰인쇄전문

E-mail: tunhwang@yahoo.co.kr
www.dongjin.biz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읽어야 할 전국민의 필독서!

- 현행 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 탁월한 효능을 가진 우리의 민중의술을 전승, 발전시키자!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한국의 의료는 절대 혁신되어야 한다.

- 전 의료전담 제판장이 던지는 현 의료제도의 모순, 충격적 고발!
- 엉터리 의료제도에 대한 신랄하고도 적나라한 비판!
- 의사, 한의사는 기껏 20~30%의 질병밖에 못 고치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우리의 민중의술은 80~90% 치료가능.
- 돈 안 들고 병 잘 고치는 민중의술의 합법적 제도화로 참된 의료개혁 방향 제시.

도서출판 우리문화

부산시 수영구 광안3동 89-13 화목오피스텔 509호
TEL : (051) 757-0333~4 FAX : (051) 757-0341
http://www.weculture.co.kr